



EU의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법 개정

박희우 연구위원, 김가현 연구원

요약

최근 EU에서 공식 발효된 EU 데이터 법에서는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하여 제조사가 독점해 온 차량데이터를 보험회사 등이 활용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결정권 강화, 차량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 증진 등이 기대됨. 보험회사는 차량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 청구 비용 절감, 맞춤형 보험료 책정, 사고 예방, 신상품 개발 등이 가능할 것임. 국내에서도 자동차 관련 시장 발전, 소비자 혜택 확대 등을 위해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최근 EU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데이터 법(Data Act)¹⁾이 공식 발효되어 내년 의무 시행될 예정임

- EU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핵심 축으로 논의되어 온 데이터 법은 2024년 1월 11일 공식 발효되어 2025년 9월 의무 시행될 예정임²⁾
- EU 데이터 법은 데이터 보유자, 이용자 등 각 주체에게 공정한 데이터 접근·사용 권한을 보장하고 데이터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전체 유럽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임
 - EU 집행위에 따르면 수집된 산업데이터의 80%는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산업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공유를 확대할 경우 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³⁾

○ EU 데이터 법에서는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사가 독점해 온 차량데이터를 보험회사, 수리·정비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게 됨

- EU 데이터 법에서는 커넥티드 차량 등을 통해 얻은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동 권한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차량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보험회사, 수리·정비업자 등과 같은 제3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커넥티드 차량 등을 통해 수집 가능한 차량데이터에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블랙박스 정보, 차량 주행정보, 부품 상태 등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됨
- 지금까지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은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해 왔으나 EU 데이터 법에 따라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차량데이터가 공유되는 구조로 전환되어 갈 전망이다⁴⁾

1)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z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2)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data-act>

3) https://state-of-the-union.ec.europa.eu/state-union-2020_en

- 차량데이터 접근 권한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사업자는 차량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차량 소유자가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소유할 경우 정보주체의 정보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데이터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제조사 외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차량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 혜택 및 사회적 후생이 확대될 수 있음⁵⁾
 - 예를 들어, 수리·정비업자가 부품 상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맞춤형 수리·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주행 정보를 활용하여 적소에 전기차 충전소 확충이 가능할 것임
 - 국제자동차연맹에 따르면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사용 권한을 동등하게 허용하는 EU 규제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차량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의 연간 잠재적 손실은 2030년까지 260억 유로, 2050년까지 950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⁶⁾
- 보험회사는 차량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공유된 차량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 청구 비용 절감, 맞춤 보험료 책정, 사고 예방, 신상품 개발 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 혜택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차량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커넥티드 차량의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하여 사고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 청구 비용을 절감하고 청구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음⁷⁾
 - 차량데이터에는 주행 거리 및 시간 등 주행정보와 과속, 급제동, 차로이탈 등 운전습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 맞춤 위험 기반 보험료 책정이 가능함⁸⁾
 - 또한 보험회사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한 운전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기여가 가능함⁹⁾
 - 보험회사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보험사고 정보가 부족한 차량에 대한 위험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과 고도화된 요율 산출이 가능함
 - 또한 드론, UAM 등 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미래형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이서현(2023), 「차량데이터 관련 EU·미국 법제 동향」, 『산업동향』, 한국자동차연구원

5) FIA(2023. 11. 6), “EMPOWERING THE EUROPEAN AUTOMOTIVE ECOSYSTEM: A CALL FOR REGULATORY ACTION”

6) FIA(2023. 12. 14), “URGENT ACTION NEEDED ON PRO-CONSUMER AND PRO-COMPETITIVE ACCESS TO IN-VEHICLE DATA LEGISLATION”

7) Swiss Re(2021), “The connected car: How data analytics is shaping the future of auto insurance”

8) Allianz SE(2023. 10. 17), “Vehicle data can become a turbo for the European digital economy”

9) Rubin et al.(2023), “Big data and data ownership rights The case of car insurance”

〈표 1〉 차량데이터 공유에 따른 보험회사 제공 가능 서비스

항목	설명
보험 청구 비용 절감	사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 청구 비용을 절감하고 청구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음
맞춤 보험료 책정	운전자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인 맞춤 위험 기반 보험료 책정이 가능함
사고 예방	운전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신상품 개발	보험사고 정보가 부족한 차량의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 및 고도화된 요율 산출이 가능함

○ 한편 자동차 제조사 등은 EU 데이터 법에서의 데이터 공유 목적에는 동의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문제,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등에서 우려를 나타냄

-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EU 데이터 법에서의 공익을 위한 차량데이터 공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히 통제되지 않은 차량데이터 공유에 따른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¹⁰⁾
 - 또한 데이터 공유에 따라 혁신적인 투자의 결과물인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파생되거나(derived) 추론된(inferred) 데이터는 공유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등은 EU 데이터 법이 핵심 노하우, 설계 데이터 등 광범위한 데이터의 공유를 의무화하여 EU 기업들이 영업 비밀 노출, 사이버 보안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함¹¹⁾

○ 국내에서도 자동차 관련 시장 발전, 소비자 혜택 확대 등을 위해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을 참고하여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EU를 비롯하여 미국에서도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임
 -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차량데이터 접근법(Vehicle Data Access Law)이 2020년 가결되었으나, 2023년 6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해킹으로 인한 원격 조종 위험을 우려하며 데이터 공유를 중단시킴¹²⁾
- 차량데이터 공유는 보험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동차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공유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한 검토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국내에서도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법·제도 제정 논의를 시작하여 데이터 공유 범위, 기술적인 공유 방법,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충분히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음

10) ACEA(2023. 6. 21), "Latest compromise on EU Data Act poses threat to auto industry competitiveness", news articles

11) REUTERS(2023. 5. 9), "EU draft Data Act puts trade secrets at risk, Siemens, SAP say"

12) REUTERS(2023. 9. 23), "Carmakers will not immediately comply with Massachusetts data repair law"